PM(Project Management, Program Management)이란?

CM과 유사한 개념으로 PM이 있으며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와 종합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CM의 발상지인 미국을 위시하여 서구에서는 CM과 PM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PM을 CM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Program Management의 경우는 공항과 같은 수많은 공사(bid package)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프로젝트의 경우, 다수의 프로젝트(multiple project)를 총괄관리하며, 프로젝트 관리의 범위도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설사업 전 단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CM과 달리 설계자가 Program Manager 밑에 위치하게 된다.

Project Management는 Program Management와 사업범위는 같으나 다수의 프로젝트가 아닌 단일 프로젝트(single project)를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rogram Management계약 밑에 Project Management 계약이나 CM 계약, turn-key 계약이 가능하고 Project Management 계약 밑에 CM 계약, turn-key 계약이 가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나 동남아, 중동시장에서는 CM과 PM을 구분하지 않고 통상 CM으로 총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OSA/PSA의 정의

OSA(Operating Service Agreement)

채굴 및 운영 서비스 계약. 석유, 가스 등의 자원개발에 있어 소유권자인 국가와 투자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 생산물 분배 협정(PSA)과는 달리 원유에 대한 개발권 소유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유전에 대한 완전 소유권을 갖고 산유량을 통제하며 투자자는 채굴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금 및 이익금 회수를 위해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아닌 기술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이다.

PSA(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생산물 분배 계약을 뜻한다. 1960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도입했다. PSA는 투자자가 자원개발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원을 생산하여 지출된 비용만큼의 생산물을 차감한 나머지 생산물, 즉 이익생산물(profit production)을 국가와 투자자가 협상에 의해 체결한 분배율로 나누는 계약형태 이다. 투자자 소유로 귀속되는 생산물은 분배율에 의한 이익생산물과 투자비용의 대가인 비용생산물(cost production)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처분, 판매하는 것이 보장된다.

Up-Stream(업스트림)/ 다운스트림(Down-Stream)

석유 · 가스산업의 사업활동은 △석유 매장장소 탐사, 유전 굴착, 채유시설(採油施設) 건설, 원유 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원유 생산부문 △원유 수송부문 △원유에서 가솔린 · 중유 등의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제부문 △석유제품의 수송을 포함한 판매부문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원유 생산부문을 업스트림 △이후 단계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한다.

석유메이저를 비롯한 세계 유력 석유회사들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석유기업은 다운스트림에 치우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석유산업의 수익은 업스트림 부문이 훨씬 높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과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79년 5월 지아울 라만 전 방글라데시 대통령의 제의로 1985년 12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남아시아 7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네팔, 몰디브) 정상들이 제 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조직의 명칭, 헌장 및 선언문을 확정짓고 발족되었다. SAARC은 빈곤퇴치와 테러방지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 회원국간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비정치분야에서의 협력과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을 도모하였는데, 특히 방글라데시는 지정학적, 경제적 약소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활로개척의 일환으로 SAARC 창설을 적극 주도하고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SAARC 회원국간에 존재하는 경제력 격차 및 정치적 장벽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강화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자국시장개방에 따른 인도제품의 수입급증을 우려하여 SAARC내 상권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9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93년 4월에 열린 제 7차 SAARC 회담에서 파키스탄을 제외한 6개국이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을 채택하였고, 95년 5월에 열린 제 8차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동 협정의 발효 및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rea)의 창설을 지향키로 합의하여 95년 12월 7일에는 회원국간 226개 품목에 대하 수입관세를 인하키로 하는 SAPTA가 정식 발효되었다.

한편 SAARC 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95년 12월 18일 – 19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 15차 SAARC 외무장관회담에서 200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던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SAFTA) 창설을 2000년까지 조기 추진키로 잠정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97년 5월 SAARC 7개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01년까지 SAFTA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SAFTA의 설치는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간 분쟁으로 98년 7월 SAARC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고, SAARC 정상회담도 이후 계속 연기되어 SAFTA 설치는 표류되어 왔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금년 2월 5일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SAARC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동 회담에서 금년 말까지 SAFTA 협정초안을 마련하고 관세 및 비관 세 장벽을 단계별로 제거한다는데 합의하였는데 SAFTA가 지역내 약소국에 불리하게 작성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한 정부간 기구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출범시킬 것이 촉구되었다.

남아시아 지역은 전체 12억이 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연간 역내 교역이 회원국 전체 교역액의 3% 수준에 불과하여 동 지역의 경제통합이 실현될 경우 그 잠재력은 무한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